기획예산처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

보도시점 배포즉시 배포 2026. 9. 15.(화) 15:00

한-독, 성장과 재정의 선순환 논의

- 조용범 차관, 독일 연방의회 재정위원회 대표단 면담
- 구조적 전환기 대응을 위한 과감한 투자와 지속가능한 재정관리 경험 공유

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은 9월 15일(화) **독일 연방의회 재정위원회 대표단**과 만나 **양국의 재정정책과 주요 재정 현안**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. 독일 측에서는 **크리스티안 괴르케 연방의회 재정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**을 비롯한 **7명의 재정위원회 의원**이 참석하였다. 이번 면담은 **양국의 중장기 재정 여건**과 **정책과제**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, AI대전환, 저출생·고령화 등 공통의 **구조적 과제에 대한 정책 경험**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.

조용범 차관은 AI발 **산업구조 재편 등 구조적 전환기**에 **성장잠재력을 확충**하고 양극화 완화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 **재정의 적극적인 역할**이 필요한 시점이며,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**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**하고 **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**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. 특히 양측은 **저출생·고령화** 등 **인구구조 변화**가 **국가재정에**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, 한국은 **구조적 도전과제**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**2045년까지 중장기 국가발전전략**을 수립하고 있음을 소개하였다.

또한, 양측은 **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**하기 위한 **예산편성의 우선순위**와 **중점 투자 방향**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. 조 차관은 **'27년도 예산안 주요 내용**을 소개하며,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분야에는 **과감하고 전략적으로 투자**하는 동시에 성과가 미흡한 분야는 **고강도 지출구조조정**을 추진하는 등 **성장**과 **재정건전성**을 함께 확보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설명하였다.

괴르케 위원장 직무대행은 독일 역시 국방 및 인프라·디지털 등의 투자 확대를 위해 재정 규율과 미래투자 확대 간 균형을 모색하고 있다고 소개하였다. 또한 한국의 **전략적 재정운용 방향**에 깊은 공감을 표하며 이번 면담이 양국의 **재정정책 방향과 경험을 공유**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였다.

기획예산처는 앞으로도 **주요 재정운용 방향**에 대한 **국제적 논의**를 확대하고, **주요국 정부·의회** 및 **국제기구**와의 **정책 소통과 협력**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.

담당 부서	재정참여정책관 국제재정협력과	책임자	과 장	이준희 (044-214-1930)
		담당자	사무관	정혜림 (jhrim14@korea.kr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
대체불가 대한민국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